



제 8회 광주비엔날레 포스터

9월3일 개막 2010 광주비엔날레



스타 작가들과 함께 '만인보' 여행 속으로

<광주비엔날레 주제>

5·18 30주년 자유·평화 형상화 작품 전시

행사 기간 광주국제아트페어 볼거리 '풍성'

제8회 광주비엔날레가 오는 9월3일~11월7일까지 광주시 북구 용봉동 비엔날레 전시관에서 펼쳐진다. 마시밀리아노 지오니 총감독이 지휘하는 이번 비엔날레는 고은 시인의 동명 연작에서 따온 '만인보(10,000 Lives)'를 주제로 설정해 더욱 눈길을 끈다.

특히 올해는 5·18 광주민주화운동 3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인 만큼 자유와 평화를 형상화한 다양한 작품이 출품된다.

또 스타 작가들이 대거 참여하고, 광주비엔날레 전시 기간에 광주국제아트페어도 함께 열려 그 어느 때보다 볼거리도 많을 것으로 기대된다.

◇오는 29일 참여작가와 출품작 발표=광주비엔날레 재단(이하 재단)은 오는 2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막을 4개월여 앞두고 이번 비엔날레 참여작가를 발표한다.

광주비엔날레에 대한 국내외 언론의 관심도 집중되고 있다. '만인보'를 전시주제로 정한 이색 기획에 대해 최근 미국 대표 일간지인 '뉴욕타임스'와 뉴욕에 기반을 둔 미술전문 인터넷 포털사이트 '이플렉스'는 잇따라 광주비엔날레 소식을 전했다.

세계 언론 관심 증폭

재단은 또 20일 미국 뉴욕 뉴뮤지엄에서 현지 언론 관계자 60명을 대상으로 홍보설명회를 연다. 지오니 감독이 참여해 참여작가와 작품을 소개하고, 전시 기획 등을 미국 화단과 언론에 알리게 된다.

이어 오는 6월14일에는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유럽 관람객을 겨냥한 설명회를 열고, 장소는 스위스 바젤로 옮겨 세계 최대 미술 시장인 바젤아트페어 관람객과 미술 관계자들에게 광주비엔날레를 알리게 된다.

전시 준비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재단은 5월부터 광주비엔날레 전시공간 설계에 들어가 오는 8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 오는 8월부터는 출품작이 전시장

에 설치되는 등 모든 손님이 끝나게 된다.

마시밀리아노 지오니 총감독은 "고은 시인이 '시는 역사의 노래다'라고 말했다. 예술은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다. 광주항쟁의 역사를 그대로 담아내지는 않겠지만 하나의 은유적인 모습을 통해서 그와 유사한 에너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표출하겠다"고 밝혔다.

작가 100여명 확정

◇스타작가 대거 참여=국내의 미술 관계자들의 눈은 오는 29일 참여 작가를 발표하는 광주비엔날레로 쏠려 있다. 현재 재단과 지오니 감독은 작가 100여명을 확정할 상태이고, 내부 출품 계약 등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이번 광주비엔날레에는 지난해 열린 덴마크 비엔날레 황금사자상 수상자인 미국의 개념미술가 브루스 나우먼을 비롯해 현대 사진의 대부 워커 에반스와 신디 셔먼 등 '세계의 별'들이 대거 참여하는 것으로 알



이데사 헨델스 작 '테디베어 프로젝트' <이데사 헨델스 예술재단 제공>

든다.

브루스 나우먼은 입에서 물을 뱉어내는 자신의 모습을 사진에 담은 작품으로 유명하며 퍼포먼스, 비디오 아트 등에서도

들의 참여도 두드러진다. 사진을 전공하는 학생들의 교과서로 손꼽히는 작가인 워커 에반스(1903~1975년·미국), 80년대 미국 포스트모던 사진의 대표주자인 신디 셔먼, 미국 인물 사진의 대가 마이크 디스파머 등 다양한 사진 예술이 광주비엔날레를 장식하게 된다.

DJ센터에 미술장터

◇국제아트페어도 놓치지 마세요=광주비엔날레 기간에 맞춰 국내외 화랑이 참여해 미술품을 판매하는 '미술장터' 광주국제아트페어(9월3일~7일·광주김대중컨벤션센터)도 열린다. 재단은 아트페어 전담팀인 '특별프로젝트부'(부장 조인호)를 신설하고, 아트페어 조직위원회 인선에 나서는 등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다.

비엔날레 개막에 맞춰 광주를 찾는 국내외 미술 전문가들의 발걸음을 자연스럽게 아트페어로 이끈다는 복안이다.

흔히 비엔날레가 다소 실험적인 작품이 출품된다면, 아트페어에는 화랑가의 검증받은 작품과 발판 가능성을 인정받은 신예



지난 2008년 열렸던 제7회광주비엔날레 개막식.

작가들의 작품이 출품된다.

이 때문에 올 9월에는 광주에서 비엔날레와 아트페어를 통해 현대미술의 다양한 작품과 양상을 함께 감상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재단 관계자는 "단순히 작품만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세미나, 학술대회, 퍼포먼스 등이 결합된 종합 예술 축제로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마시밀리아노 지오니 총감독

"은유적인 표현 통해서
광주항쟁의 에너지
다양하게 보여주겠다"

려졌다.

현재 지오니 감독이 밝힌 참여 작가로는 이데사 헨델스·엠마 쿤츠·마리아 라싱·토마스 허쉬호른·필립 로트카디 코르시아·프랑코 바카리·귀 광이·테칭 쉬에·통 빙슈·케런 시터·마이크 디스파머·한스 피터 펠드만

선구적인 업적을 남긴 미국의 대표 작가이다. 이데사 헨델스가 선보이게 될 '테디베어 프로젝트'는 가장 기대되는 전시이다. 아가자기한 테디베어 인형과 관련 사진 100여점을 선보인다.

또 이번 광주비엔날레에는 유명 사진작가

13만여명의 합격자를 배출!

www.kimyong.co.kr

김영면 입학원

광주동부경찰서 뒤 (062) 222-8088, 227-8088

개강 ▶ 5월 3일 대학편입 강좌안내

편입영어	거주이민반	편입영어 전과목 학습, 수험생들이 꼭 알아야 하는 편입영어 학습법 소개
	분과특수반	1차시험만 합격자를 위한 편입영어 학습법 소개, 2차시험 준비법
편입수학	선형대수반	수학능력시험 1차시험 2차시험 3차시험 4차시험 5차시험 6차시험 7차시험 8차시험 9차시험 10차시험

왜! 편입하면 김영인가?

편입특수반 1차시험 2차시험 3차시험 4차시험 5차시험 6차시험 7차시험 8차시험 9차시험 10차시험	편입특수반 1차시험 2차시험 3차시험 4차시험 5차시험 6차시험 7차시험 8차시험 9차시험 10차시험	편입특수반 1차시험 2차시험 3차시험 4차시험 5차시험 6차시험 7차시험 8차시험 9차시험 10차시험
--	--	--

상위권대학편입 / 전남대편입 / 일반편입 / 학사편입 / 사범대편입